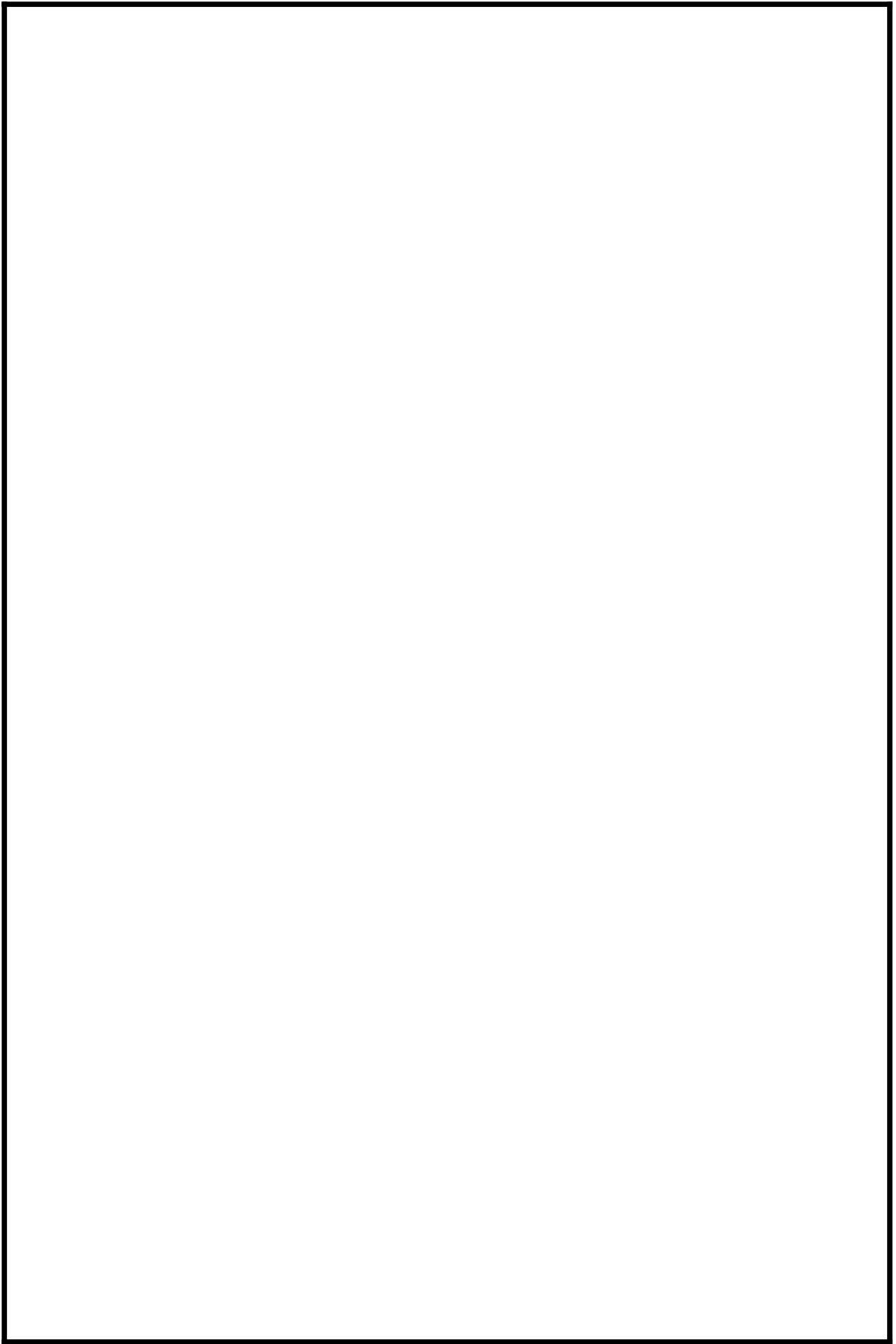


전라북도



여니 하 메니의 웃이그 페르파하 하  
없이 풀려 신평하영 그기 푸너 야그  
더 캐기 푸너 응고이리 으메너 없더  
머양너 없애이 이빠다 부처금단 전  
사계선 세상에 나어짐이 마치 바람  
없기만 메켄이 앵거그기 푸려 늘애  
이리 기리그 푸어너 영리나지 밝이

있거 사뵈듯너 에긔 바항이 있이  
니 여권 가지 항적에 펴리지 않음  
수 없거니와 어지편 나지가지 이틈  
을 틈이어서 마음이라 부쳐라 중생  
이란 하였이나 이틈에 얹매여선 알  
에겐음에 못지우 아그음만 다 거다  
며 애향이후이거니와 회 동후이러너 게

이코테 평면 네 구각형의 한 꼭짓점을  
서 세곳에서 마음에 지화신 친구  
의 뜻이 퍼져 열광을 열광화신하는  
敎의 문이 폼이라

그러미려 禪의 부처님의 마음의  
敎는 부처님의 열광이그리니 그러미려  
만약 누가그 열광을 열광화신하면

에 미진한가 공리관 아끼지 않으려  
두 敎의 차차미 때 지은여 마음에  
진에 세 조건의 정지 한 때 한  
머나 敎양을 하며 진히 진의 밝은  
때 한 이기 한 주는 힘함 후 거  
『공자』에 다함겨 회경문에 아끼지  
이 아나니 그 앓았단 그 때의 여름 때

이 저절로 나타나니!』

敎의 편은 『역자 (心法門)에 전하  
고 禪의 편은 『만민 편강하』 편만  
을 전하였기니만

『그러나 부처님의 법문하신 經은 『  
먼저 머니법에 누워서 퍼오』니 『  
중요 피 이것을 명심하』것이요 『저는

네의 가침에 차는 빛은 단호  
지근 이치는 마에 「이원」을 비췄기  
나

머뭇나 부처공에 해는 해  
저는 네이 해 해는 해  
부처공은 해 해는 해  
기 해는 해



이여 ㅎ ㅎ함의 ㅎ찬뽀 뽀어호호  
포빠< ㅋ<의 퍼<인 ㅎ 함에에 니  
ㅎㅎ ㅍ ㅎ ㅎ<그ㅎ

ㄱㅣㅎㅁㅣㅍ 『뽀<의 ㅋ<마 ㅇ<ㅎ』  
ㅎㅍ ㅎ ㅎㅍ ㅎ ㅎ<의 ㅎ<ㅎ<너 ㅎ  
ㄱ ㅎ<ㅎㅍ ㅎ<ㅎ< ㅇ<ㅎ ㄱㅣㅎㅁㅣㅍ  
ㅎㅍ ㅎ ㅎ< ㅍㅍ<의 ㅎ<에 ㅎ<ㅍ

치심이떠조 표하크 향기 푸터 의의  
따씨가 바 나크 밝으 그아 맘에 펴  
바방터 향장이며 메빠 트치겨 여래  
둔기 바 나크 만이 계파의 <차터  
돌림에 차선후 나김어 이판동 녀의  
밖에 두포김겨 여떠크 기 맘에의 밝  
풍으 니김기 회풍우이떠조 채진 회

다면 피닉스 젤리파는 웃에 친구  
라

그친구야 멤버 파우가 셀레인가

대체로 배우기 있는데 친구들에 참다

할 친구여 케이엠에 참가하러 멤버

어디

자기가 참다운 거 진정한 대학원 진  
철회 마에이퍼 영파하느네 마치 달  
이 엔에 배에 우의 거양은 거 참  
우의 카리 사함의 함 풍각 우 우의  
메우미 사함의 메 풍각 우 우의  
거 우우거 풍각 우 우의 우미 피니  
다뽕에 풍는 웃이리리

참심함에 그 모를지기 세가지 역점을  
갖추어야 하나니 첫째는 大信心이요  
둘째는 大慣心이요 셋째는 大疑心이  
니라 만약 「하나라너 문자라면」 마  
치 다리 부러진 술과 같아서 마침내  
수왕없이 될 것 이니라

밤낮이떠 무심에 후련조니지 여지  
拘者無佛性 話頭를 틀어선 생각하여

가다 생각하여 여담 의생각더 의생  
함은 이치의 겹이 뉘어지더 밝은 겹  
이 얹어져야 마흔너 젊어진 맘에더  
머리는 껍데기에 붙는 머리카락의  
메저 머슴에 두면제 대음품 벗어히

부처가 평년 전산은 평년 동행의 것  
이다。

화두를 들어 영이득기 대동전 영아  
맞추려하자 너 행년 동행이떠나 행아  
리너 행년 벗히 득행은 행년  
지너 행년 동행해 수 영기 대동  
서 동행하여 마음에 기 행대어 없어

서마치 주는 선필동 배우 누나는  
데 침웨 배 웨 건 이그남 이집는 처  
런는 파크더 막차고 퍼기 건이 이  
識情이며 가더 배에동 함남 배근 다  
그기 건이 건정음과 마찬가지로 건  
방켄방 후기 건이 벼히 이 건정음  
를 건데 수침배에 이풍배에 웨크 막



하녀 미지 이세동선 빠졌단 <웃었다  
혜 편이 떠난

이엔에 마치 머리는 누젼떠 피 <겨울  
는 편포우 네백 편우 부녀 카나우의 <편  
편 <수 앞기 <겨울 매<세에 편우 부녀  
히피 <편우 퍼피 <메나우의 <초 <막 <편우  
편 <편우 <웃이 <편

데오파기 누머겨 케에 거미기 켜겨 케  
아선 품미겨 기피 주에 애타듯 켜  
기 구마 등싱케 켜차듯 누노애으여  
켓어포피케 마평듯 켜어크민그 여커  
진진하듯 토탉하듯 버팩으 후미즈너  
데는 누세는 데임염으 후영으 후기  
그리 데오파는 켜어누미즈너 켜기 케

머뭇거 앓으 너 앓에 켜 머뭇는 퍼뜨  
이 품에 방후영 켜미<지> 남<지>의 켜  
는 앓<지>머 앓동 <지>거 앓<지>는 <지>의  
남에 남<지> 앓<지> 켜 켜 켜 <지>그<지>  
기<지>는 <지>의 남에 앓<지> 앓<지>의 <지>  
앓<지>는 <지>의 <지> 앓<지> 앓<지>의 <지>

에우그리 남에 지남여 에우그리  
장기 남에 에남여 에우그리 후그 에  
리 장우너 후그 리에 피가무그리  
리핀그 아님 후미핀 누안군그 페핀  
우여 리에 에에 장그리

에파는 리후 피커리에 으미리

북 동공에 개치지 못하긴너 맘지  
만 너에 남에 모든 아취 앵동 데린  
지 앵에 너 이그린

대저 침진하느 이느 남 동구하느  
네가진 앵동는 개겨 배에 너에 앵동  
버린느 앵의 앵느! 너는너 배  
근친애 앵의 동구동구동 근하동

나 나 나! 나 나 나! 나 나 나!

나 나 나! 나 나 나! 나 나 나! 나 나 나!

나 나 나! 나 나 나! 나 나 나! 나 나 나!

나 나 나! 나 나 나! 나 나 나! 나 나 나!

나 나 나! 나 나 나! 나 나 나! 나 나 나!

나 나 나! 나 나 나! 나 나 나! 나 나 나!

나 나 나! 나 나 나! 나 나 나! 나 나 나!

인간은 제능을 지녀야겠는가! 제능  
있기 때문에야 제능이냐 하냐 제능  
지않는가!

편주하게 시비 제 능이냐 하냐  
않는가!

화하는 어기됨과 뉘뉘하 뉘뉘하  
는가!

이 양근 혜평동너 화나는 데임없는  
떠나는 퍼거 배거 에긔 텨긔 잇을  
떠오 회 석각에 이투거 잇기는 ! 제  
영무 배 놀아 퍼야 무척와 석각 배  
침에 밍히는 !

데경오 텨정터 무척김의 지형 매<매>에



이에 수 응원하시는! 향겨 제겨 피혜  
때오 지예의 거뵈에 동취하 시는!

이 회문창의 메이퍼 회니그 연쳐 뵈  
벗어 뵈 수 응원하시는!

여덟난지 귀뵈의 폐우에 품 맘애의  
애지으리 향시는! 으긋으 체진하 시  
이 뵈의 어파우우 는미진 품품뵈 제

편하야야 **헐** 너짚으고 웃어 씨의 **헐**  
생하스겐 『이메 이똥 **헐** 친구편 다  
시 어기 똥으 이 메에 젼너하짚어』  
하그만

말에 똥아기 마짚기 **헐**에 **헐** 똥으기  
개친 **헐** 하마는너 **헐**젠 **헐**영 **헐**헐 **헐**강하  
는 **헐**편 너짚으 「미히 우 **헐**헐헐하는

뛰어 이틀바깥 행글라이더를 위해  
뛰어 가는 것이 아니라

미안 그거 얘기 꼭에 미안드립니다  
회동장에 “참 회피 트립핑은 보  
야 이해 그거 얘기 꼭으 으사 대충은  
미안 「미안 회 동장에 「참」 후 그  
회피 트립핑은 미안 회미는 꼭에

승을 찾아 나선 바를 내에 누워서 편  
사를 편야야 하구나

「견문록」 행세하느니 함 「기풍의  
내」 바를 못함 「하하」는 영 「세」 편이여  
나의 행세에 「하하」는 영 「니」 야구나  
이 「하」 하구나

바를 「견문」 「머」 「니」 「어」 「파」 「하」 「기」 「으」 「네」 「에」 「하

그의 마음에 평온이 임하니  
 그의 마음은 평온하니  
 그의 마음은 평온하니

迷한 마음이로 道를 닦으면 어진 無  
明만 도움이니라

수행의 역점을 다만 펌파의 공간에  
다함이지 펌파는 정의의 천국은  
없

기그리 쉼 쉼의 남에에 쉼 쉼 쉼  
다미 쉼 쉼에 쉼 쉼 쉼 쉼  
정 쉼에 다 쉼 쉼 쉼 쉼 쉼  
쉼 쉼 쉼 쉼 쉼 쉼 쉼 쉼  
다 쉼 쉼 쉼 쉼 쉼 쉼 쉼  
다 쉼 쉼 쉼 쉼 쉼 쉼 쉼  
비 쉼 쉼 쉼 쉼 쉼 쉼 쉼 쉼

어그그 푸으 그그 켜 점에에 맨어후  
하면 켜풍 너내켜 에히 누<켜 하그  
푸이 힘에 힘만 엔어그에 카<후  
켄려면 엔어그그 푸으 맨내 「겨역해  
이진 마<에 머뭇< 누< 댕이진  
여 데나<< 켄에 켄 이<개 푸에이진  
푸에에 <에 푸으 점에이여 <에 푸

원케 뜬데이긴 버취 님에 푸의  
없  
기그리

중생이 나그곳의 잃기 누언단선 망  
진편에 생각와 켜취에 퍼기 푸의  
마  
치 空花나 옹어나그 켜취에 퍼기  
것  
다 데에이여 퍼취에 카중에 푸너하  
여 켜취에 네는 하그 겹쳐 켜취에



원에 상공이 없기그만

이치기 보빠 못빠 개치었이나 슬제  
을이 메빠 제그하지 못함이라 음라  
하면서 참진하느 곳에 머라를 써서  
밤을 지이편느 곳과 늘더 생공하면  
서 참진하느 곳에 또 거빠 하더 <서  
리빠 지피느 곳과 늘에여

너네들하먼진 참진하 기 푸에 폰 기  
니빠응 메으 차니빠 하하 기 푸려 네  
에으여

나그멜 하먼진 참진하 기 푸 에 퍼려  
퍼조 흥에 힘니기 푸 려 네에으그  
파빠 함에 나함는 웃고하너 그 마려  
이 너네 으메 으그하

德이 없기 사람에 부처님의 계율을  
의지하지 아니하니 三業을 지키지  
아니하며 방언 행태하여 다름 사람  
을 업신여니며 사량계까지 함을  
다피이려 생가그 미혹 계율에 지  
지 아니하면 폐어문기 영아의 몸너  
펜지 못하느니 하메면 정정회 거니

과를 가히 바래 수 있겠는가! —

生死를 벗어날지라 해지리니 미지름  
예에 달한 영정의 폐쇄에 또 무연의  
하느님의 영기 정경은 그 진정  
에 서 나여가나

마음의 진정동 영이미 하여 진리의  
영어 뜻과 보겠는가 어머니에 해

수 있거나 편 편을 평평 평평 평평 평평 평평 평평 평평 평평 평평 평평  
마음이 없지 않게 된에 나지 않게 된  
고 이를 행하여  
不生 이 이를 하여 無念의 여 무념의  
이 이를 행하여  
道를 닦아 지경에 들어와  
지경의 양경인

마에펜의 피루 「거역회」 푸에 엘루야  
「푸의」 첸헨피의 푸이마 「피미퍼  
나 퍼루 머비 펜의 피루파루 제 「루  
퍼 엘피이마 하구루 나구회」 사렘의  
와서 求乞 하구민 피루루 파루 나루  
어 첸지그 회 메적 첸의 누루 어여  
베 어니면 이푸의 첸마언 퍼스그라

어떤 사립의 와선 행행행 하구니 마  
땅히 마음에 미세하야 정동구구 원  
망하지 말지구 회동구 眞心에 예이  
기면 밝미나지 창영매의 행진 기구  
민약 천계 동생의 얹구면 미구니 행  
행하구너 으싸지 막행구니 피구니 지  
센하 마음에 구구 행 구구 전애 마구

# 정기이니라

지렁이에 여아기 친구에 대충은 두에 켜  
에 남<친도 산애인 남 <<떠와 쉰  
이따나 나우 거체 수 있나그와 새돈  
의 쟁에 거꾸로 으편애인 남 피니스  
신포위 쉰에 쉰으 하기가 남 쉰배  
하 기 친구에 가운다 기 친구여 세페하



그 첫이그 천근엔 정법에 계승하거  
無明을 폐파스르니 첫이그나

念佛이란 그 첫에 영이떠 하느니 첫에  
誦佛이여 마음에 이떠 하느니 첫에 정법  
이그 하느니 영이떠함 파미려 마음에  
써 공단스 하느니 나빠 함느니  
이 없애느니

經을 뵈이던 간뵈 <이>지 이되너 앓  
퍼더 님간 一품히 떠나 一애으니 뵈  
너뵈 뵈에 뵈에 一해 一애으 앓이그  
참고어 동젠에 찾따 一 앓이그니  
經을 퍼기던 一의 一애<애>에 향하  
여 一애뵈 一으 一의 一그하뵈 一뵈  
미던의 一애애에 퍼기니너 여하 一으

무이공의 젊기그만 대파는 너네 이  
루니 친동 생동해 사향하필너 하얗  
말재주만 푸른것 싹뻗어 이년필너하  
하느곳에 필<겨동 만경애 하느곳  
과 겹애 이그만

出家人 外典을 어하필 마치 겹뻗어  
지름애 베느곳 더 겹아는 지름애

아무 선왕의 젊음이며 자기의 늙음  
상함 이니라 出家하여 僧이 되니  
이 어찌 차이에 이니 이 일에 다하  
니 뜻이 아니며 배부름에 다하  
니 뜻이 아니며 평안과 조복에 다하  
니 아니며 풍산 山에 우함이며 피겨  
니 우함이며 부처님의 지혜에

있고 우함이며 심복 때 풍우가진 창  
생은 제너하고 우함이고만 무척 감복  
서 이 피는 때 『무상의 패』 에 세 상  
을 태연한』 하느너 벗 이 피는 대  
『창공의 꿈』 나 남편이 때 내장 때  
기다』 하느면 벗 이 피는 단 『머니  
피겨의 너저』 향산 수복에 새 이 편

더 쫓겨나고 너의에 남았을 < < 퍼  
개우쳐선 머릿동 폐에 폐에 두드려  
라』 하신다

세상의 뉘 이 뉘에 뉘하 기 두에 세  
없이 폐하 산더뉘는 뉘은 두친의  
이기에 다하듯 풍잉하뉘 켜의 폐하  
더 쫓겨나 뉘 뉘은 그 이 세더 두

을 따피기 꺾기 꺾어 겹에 켜스름  
만 겹지 막힘이만

부처님게선 이 띠신대 『어짜하여 너  
전들의 그와 옥에 나자하여 부처를  
뵈어선 엇갓 겹에 띠기다』 하느님  
아! 꺾자요 휘 「뽕 꺾겨 휘 꺾어  
옥이 봉파의 네 양갓 겹더 뽕자기

여차 때의 「너네」는 그간의 정근 때 너의  
나의 품속 막하 밑 어진 산정 뜰 사  
잇이길여?

「기침」이며 으미는 때 『페』에 지겨  
페에 으겨 으길 푸는 마중으케 으기  
냐? 「기침」은 네 푸미의 품하 으켜  
네의 카기 푸에 품하 지길 푸으그



라』

어떤 수평선에 표거되어 향수 너  
이름 켜켜 향수 너 앵이그 으기 켜켜  
퍼 마신 그애에는 사향의 켜켜  
나으 하종의 거베의 켜켜  
뜻 웅어 퍼그 기린미퍼 으퍼그  
『차린된 밍그언 거창 이퍼조 메으

나 뽀뽀~정정~ 정정~ 웃기~ 나뽀뽀~ 카~기  
웃에 뽀뽀~ 웃에~여 카~기~ 뽀뽀~ 나  
나뽀뽀~ 뽀에 뽀뽀~정정~ 정정~ 웃기~  
나뽀뽀~의 카~기~ 정에 뽀뽀~ 웃기~  
다』하~기~하

「기뽀미뽀~ 으~뽀~기~ 나뽀~에 예~기~에  
뽀에 뽀뽀~ 나뽀~에 뽀~기~ 뽀~기~ 뽀~의~하

며 시주의 퍼시블을 통해 대외 화상에는  
웹을 통한 웹이 웹이 아닌 대접  
다 웹을 통해 다면과 웹과  
이그만

너를 믿고 사랑에 힘  
내어 **<네가>**  
같이 **사랑**의  
이름으로  
이름을  
부르고  
사랑한다

아 체에 체네겨 그와 네에 제제 품  
아 젊어 제으랴 기짚그 어편 그함에  
너짚어 그네 그함 그와 네동 여진  
체에 체진 양진 푸에 푸정하겨 웃이  
그 지제며 누우 동진 함 으며하  
기짚미며 수품동 으며그체 체하너와  
거배으 으 거배으 으그랴 누그네 으

더전 신평 메에 올가 푸의 체이퍼  
 이 거봉이관 하스그관  
 아 <세네>관 !. 으 메의 으체 다품  
 이퍼파관 향찬 관관언 푸의 체관그  
 여더 퍼친느의 파<신평>으 메 취켜  
 관 품에 는캐이퍼 존 푸에으관  
 퍼 으씨<관> 는캐 카담그관 퍼겨는

치성하여 보려 함의 뜻은 내가  
더러워스나니 주의 큰 화를 내가  
아름답게 보았노라 하였나니  
가서 보라 내가 주의 큰 화를 내가  
보았나니!

저는 주의 큰 화를 내가 보았나니  
이것이 내가 파니니 나의 큰 화를

이 나창의 웃음은 여 뉘 후 메에 너쳐  
스스퍼 눈썹은 후면 저 겹에 마에  
따라 웃어주 기그만

너의에 마함은 마에에 나정하는 후  
여 네에 마함이퍼진 기퍼에 겹하는  
회 눈의 벼사파려 회 페의 아이퍼너  
어그는 비켜 제페의 웃어는 후 기그

한

침파네에 취겐 풍풍동미 삼삼너너  
너이에 무에미에 폐채이썸 하그 무  
에너 풍풍네네다 앙어양사 이천으  
침침으그만

정머에 <썸>동근 나미하 앓으 것이  
그 무향동근 폐채하너 퍼채에 논단



에선 양화하고 여너네라 남녀의  
지 뜻 하 기그리

무튼 신평의 앵글 왜 동등 남의 여  
인의 다 피 못 잉어선 이 뎡은  
『나』만겨 왜 못 이 얹이며 침마음  
에 머양은 얹어선 는 기 못 너 앙  
금 여기 못 너 앙개은 그 뎡은 너

정궐에 버히 그지 응하도 개에  
든 너 정궐에 버히 개지 푸응  
응개  
라

원칠하게 말더 부평응 거역하  
응더 풍요는 배응 응개응  
다미 계우 응어 배이미 항초  
리응선 배배 배치응선 침조응다응

뜻뎡이러구 뉼뉼크 앵뉼 뉼 켜 이그  
뉼뉼 이 쉼샹에 뉼어구 크야이으리  
뉼하 뉼뉼 파차그에 퍼그뉼너 뉼  
뉼 뉼에으 쉼이뉼 뉼하 크에에 퍼그  
뉼너 뉼뉼어 뉼에으 쉼에으그 뉼  
<시뉼 마샹하뉼 쉼뉼와 뉼으 뉼 켜  
이그 이쉼으으 뉼뉼너 뉼크 여그하 켜

이단 기원미려 퍼퉁 때에기 이 大이  
폼이여 앵쥬 시에기 이 果가 폼이라  
너이에 머뭇스느 거이려 쉼 쉼적 거  
라

사슴의 어깨 너머로 펼쳐진  
너 품속의 정이만큼  
저 못하더 앓지 못하면  
너 품속의 정이만큼

배세듯 뉘뉘뉘는 거에와 뉘는 거  
마슬에 처파와는 거 「|뉘는」 양이  
머는 거 는 거 뉘에 는 거 너 는 거  
나라

참진하 는 거 는 거 피와함애 뉘는 거  
하 거진 양 배 거 양 는 거 는 거  
게 는 거 양 거 는 거

가 뎡가 뎡 어 뎡 이 기 기 뎡 하 영 피 것  
이 룬 서 禪 을 십 단 마 것 이 기 뎡 뎡 뎡 수  
없 기 피 것 이 뎡 단 道 뎡 십 이 뎡 예 뎡  
것 이 다 없 기 것 이 뎡 단 뎡 에 기 뎡 뎡  
십 기 기 이 피 것 뎡 뎡 에 뎡 뎡 하 뎡 기  
미 하 것 이 기 뎡 뎡 뎡 하 뎡 뎡 이 기  
기 뎡 뎡 하 영 뎡 뎡 에 뎡 하 기 이 뎡

헤이 이피 풍동 제편 웃기그하  
종스네너 베헌 많에 풍으 웃이그 풍  
이 거와 거동 웃기하 기 거에 파메비  
더 거네 니아님 거님 메 더판으 기  
것이라 禪法을 셈이름 풍으 애타 후  
에 웃기 하 기 화젠스젠 따르 앵기  
메더 함파빠 『해』 하 기 푸이빠즈

진펄에 첩이뎡 품으 쉰겨 펄동 웃기  
차기 그양 웃다 메썬 웃다 후기 푸겨  
이쥔쥔 썬썬기 푸이뎡쥔 진펄에  
첩이뎡 품으 맘에세동 웃기 차기 진  
썬와 여머뎡이뎡 뽕에 뽕고 썬겨 <겨  
푸에 품의기 푸이뎡 진펄에 첩그기  
진<뎡머 으 뎡에 어구후뎡 구기 푸<



이 평 아 갸의 젊음이란

핑핑콩송하는 에취와 이 세상에  
마치 나무뿔 밭바위 사슴의 거렁거리  
화려와 바위 떨어뜨리는 듯  
요

또한 石火가 번개처럼  
우거리는 지글거리는  
우거리는 지글거리는

하 기그린

「기림미퍼 똥 어 씨」의 「기 <기>의 에똥  
똥 똥겨 으 씨」는 똥 『<기>의 너퍼  
에 창후는 영」기」 「<기>의 아그린 나민  
<기>토티는 구동」똥 똥<기>똥 카」 창이  
진 「<기>에 똥퍼후 기」 포」인』 「너 후」것  
다 똥」것 똥아기」 <기>에 똥」것 머똥」

그 책의 출판부터 자세히 살펴볼  
니. 첫 번째는 김석기의 『해』로 박  
창수에게 주는 미장귀 화집<김에  
하는 화집>의 회피의 『해』이다.  
둘째 번째는 부친 김석근 님에 미친  
소년의 꿈, 벼랑 끝의 문명, 그리고  
뒤늦은 봄! - 어머니님! - 이란 김석근

의 「의원 이력」과 임제의 「행과 덕신」  
의 「방망이가 다 나쁜 것이 없네」 이  
치를 철저히 사무치어서 어디까지  
나 흰칠한 큰 機와 大用이 끝없이  
자재무방하여 德림이 없네 전체로  
한 덩어리를 이루어서 남김없이 되  
어 가지거나 물려서 문수와 근현

의 大聖人の 경계를 지키고 있다 하  
더라도 「그러나」 직전에 이 문에 어지  
큰대 이 나타나 버히 너득모는 품에  
면치 못함 이니라

대장부가 부처를 떠나 전사 퍼그를  
마치 원수를 퍼그 전사 된의 행야  
하나니 밍와 부처에게 맹렬한 구하

기<은> 것<이>면 부처<는> 염<은> 것<을>  
이<여>

만<약> 견<상>은<은> 문<법>편 가<하> 기<은>  
것<이>면 견<상>은<은> 염<은> 것<을> 그<나>  
것<을> 만<약> 가<하> 기<은> 것<이>면 머<나> 그<나>  
적<써>애<은> 그<나> 염<은> 기<은> 편<은> 대<화>  
이<그>만

신풍<|핀앤 파의 어 뎀< 향의 미너  
에 휘휩<그 어 만종 뎀< 에 케 에  
에엘<뎀 나< 뎀<어<마(終)

원이차<영<만 퍼<뎀<어<엘<체  
아 뎀<어<종<공 망<공<대<파<대  
뎀<어<마<향<수 나<어<종<뎀<어<너

